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블라썸 여좌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18-02-23 13:52 경남CBS 송봉준 기자



(사진=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3일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블라썸 여좌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역 전문가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좌동과 경남대학교에서 진행된 '빈집 리노베이션을 통한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워크숍'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학생, 건축사, 문화기획자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팀을 꾸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향후 지역기업 후원과 주민 기부를 통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골목길 디자인 공모전인 '여좌동을 부탁해'는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정된 4개의 골목 중 하나를 선택해 디자인하는 계획분야와 세부디자인, 아이디어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모집한다.

'블라썸 여좌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와 창원시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손재현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는 창원시 도시재생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며 "올해부터는 지역대학의 교수와 학생, 건축사, 문화기획자, 사회 복지사 등 지역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주민과 결합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중심의 창원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여좌동이 안고 있는 '빈집 문제', '노령화 문제', '마을 침체'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검토를 통해 접근을 했다"면서 "물리적인 사업을 우선하기 보다는 주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929429>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